

지역에서 연극배우로만 35년... 기념 공연 앞둔 윤희철씨

유전 때문인가... 환경 탓인가

‘죽음과 소녀’ 18~22일
후배 박규상씨 연출 맡아

연기 인생
1979년부터 매년 무대에
털털한 서민연기 일품
전국연극제 연기상 등 수상

목표는
‘느릅나무 밑의 욕망’
더 늦기전에 재도전

후배들에 조언
연출자에 의지하지 말고
무대에서 새로운 해석하길
타지역 배우와도 교류를



연극 인생 35년 기념작 ‘죽음과 소녀’ 공연을 앞둔 배우 윤희철(왼쪽)씨와 연출을 맡은 후배 박규상씨는 30년 지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

연극배우는 ‘무대’ 위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무대에 서고 싶다고 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캐스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점에서 연극배우 윤희철(55·극단 드라마스튜디오 대표)은 행복한 사람이다. 1979년 극단 Y의 ‘화가 이중섭’으로 프로 연극 무대에 데뷔한 이후 단 한해도 쉬지 않고 연극 무대에 서 왔다. 군 복무 시절에도 부대에서 단막 공연을 했을 정도다.
연극 인생 35년을 맞은 그가 기념 공연을 준비중이다. 데뷔작을 함께 했던 극단 Y와 함께다. 기념작은 칠레 작가 아돌포 아도르만의 ‘죽음과 소녀’(18~22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6시, 일요일 오후 5시)다. 연출은 30년 지기 후배 박규상(53)씨가 맡는다. 두 사람을 공연이 열린 광주시 동구 장동 ‘Theater 연바람’에서 만났다.
“연출이나 제작·기획 등으로 의도하지 않고 오로지 연기만 하면서 35년을 보냈네요. 배우는 연출자나 극단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연하고 싶어도 불가능 한데 선배들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무대에 서는 게 참 행복합니다.”(윤희철)
“서울과 달리 지역에서 배우로만 35년을 보낸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도 매해

공연을 이어간다는 건 더 힘들죠. 50대 배우가 여전히 현장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건 참 멋진 일이지요. 좋아하는 형이고, 기념해주고 싶었어요. 무대에 오르는 것을 진짜 좋아하는 선배예요.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귀찮아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박규상)
윤희씨가 출연한 작품은 150여편에 달한다. 다른 연기도 좋지만 무엇보다 털털한 서민 연기가 일품이다. 윤희씨는 ‘느릅나무 밑의 욕망’, ‘안티고네’, ‘관객모독’을 대표작으로 꼽았다. 그의 연기를 오랫동안 지켜본 박씨 역시 ‘느릅나무 밑의 욕망’과 ‘안티고네’가 인상에 남는다고 했다.
지난해 푸른연극마을과 공연한 ‘안티고네’는 윤희씨에게 각별한 작품이다.
“나이 오십이 넘으면서 더 이상 나이 먹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생각했죠. 안티고네가 바로 그런 작품이었죠. 대사량도 많고 감정 폭발도 많고 죽을 통 말통 했어요.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연기의 완성도 여부를 떠나서 도전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한편 정도는 이런 도전적인 작품을 하고 싶어요.”
박씨 역시 “무대 위에서 에너지를 받아 감정이 폭발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 작품을 통

해 형을 다시 봤다”고 말했다.
꼭 다시 해보고 싶은 역은 ‘느릅나무 밑의 욕망’이다. 당시 30대에 70대 역을 한데다 연출이 ‘사카에 대로’ 연기를 해서다. 최근 다시 읽으면 희곡은 그 때 생각지 못했던 감정들을 떠올리게 했다.
조대공전 이랑극회에서 연극을 시작한 그는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전국연극제에서 ‘막자 타고 노을보다’와 ‘강릉꽃’으로 2차례 연기상을 받았고 광주연극제와 전남연극제에서도 6차례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연극 공연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영화 ‘시라소니’, ‘효자동 이발사’, ‘아부의 왕’ 등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칸 영화제 출품작인 ‘도희야’에도 얼굴을 보였다. 광주 MBC와 KBC ‘아침마당’ 패널과 리포터로 활동했고 현재는 국악방송의 ‘빛고을 상사디어’ 진행을 맡고 있다.
“우리 때와 달리 지금은 후배들이 연출자의 디렉팅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 아쉬워요. 연출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배우는 또 그 위치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야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또 익숙한 배우들과의 공연 뿐 아니라 타 지역 배우들과 교류 등을 통해 치열하게 부딪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

윤희씨는 지역 연극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규상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 배우로 오래까지 남아 있자고 일단은 환갑 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월이 흘러 같이 작업하고 싶은 선배였다. 한 무대에 서고 싶은 선배였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 ‘죽음과 소녀’는...

‘윤희철 무대 인생 35주년 기념공연 ‘죽음과 소녀’는 군사 쿠데타로 아옌데 사회주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17년간 집권한 칠레 피노체트 군사독재 정부 시절 이야기다.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지 얼마 안된 시기. 15년 전 반정부 혐의로 납치돼 성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을 앓고 있는 헤빠올리나는 남편을 도와 준 인연으로 자신의 별장을 찾은 의사 로베르토가 자신을 성고문한 당사자라고 단정하 그를 감금한 뒤 죽이려 한다.
채민석·양선영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62-226-2446.

소설가 서용좌 ‘표현형’ 펴내

유전자형인가? 표현형인가?
현대사회는 변화무쌍한 시대다. 고유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삶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처한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질을 발현하며 산다.



소설가 서용좌(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 교수가 신작 장편 ‘표현형’(푸른 사상)을 펴냈다. 생물학 용어에서 차용한 제목 ‘표현형’은 인간의 개인적 발현에 초점을 둔다.
2010년 ‘반대말·비슷한 말’ 출간 이후 4년 만에 펴낸 작품에서 작가는 인간의 심층에 ‘도사리고 있는’ 정체를 날카롭게 파고든다.
“소설은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전임교수가 되지 못하고 점차 내리막 인생을 사는 지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지식을 팔아먹는다는 점에서 피를 빼는 박쥐와 닮음이 없지요. 그는 날고자 하는 꿈 대신, 이야기를 퍼나르는 데 날개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주인공이자 글을 쓰는 가공의 저자 한금실은 ‘삼포세대’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인물로, 대학에서 비정규직 강사를 전전한다. 그를 둘러싼 현실은 녹록치 않다.
강의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미래는 암울하다. 그럼에도 그가 버릴 수 없는 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다. 그의 유일한 ‘낙’은 소설쓰기다.
그는 동류항 인간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유전자형과 표현형 인간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유전자형과 표현형 사이를 오가는 이들의 모습을 추적하기도 한다.
작품은 ‘배달민족’ ‘한국어’ ‘표현형’ ‘은실’ ‘삼포세대’ 등 모두 11편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제목이 붙은 이야기는 따로 존재하는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인 ‘표현형’으로 수렴되기도 한다. 물론 이야기를 전개하는 주인공은 가공의 저자 한금실이다.
“주인공을 통해 들여다본 삼포세대의 내면은 표류와 공허로 집약이 가능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질 이죠. 성장이라는 화려한 외피 이면에, 심리적 고통을 앓고 있는 이들이 발현하는 양상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서 작가는 ‘소설시대’로 등단, 장편 ‘열하나 조각그림’, 연작 ‘희미한 인(생)’, 소설집 ‘반대말·비슷한 말’ 등을 펴냈고 이화문학상, 국제펜 광주문학상, 광주문학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림문학상 장정식 작품세계 분석

계간 ‘문학춘추’ 여름호 나와

지역에서 발간되는 계간 ‘문학춘추’ 여름호(통권 87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제17회 한림문학상 수상자인 장정식 수필가의 수필과 작품세계를 분석했다. 문학평론가 이명재 중앙대 명예교수는 ‘꽃향기와 고향 회상’을 주제로 장정식의 수필에 담겨 있는 꽃의 이미지와 서정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기획특집 ‘남도문학작가 탐색’에서는 순천 출신 박봉우 시인의 문학세계를 다뤘다. 하소미 시인은 ‘철조망에 아로새긴 분단의 아픔’에서 박봉우 시인의 시가 지향하는 분단 극복과 통일에의 의지를 조명했다.
이밖에 권영춘 시인 외 14명의 시와 박성배 작가의 동화, 손광은 시인 외 3명의 서평, 송명숙 시인 외 6명의 동시가 실렸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새로운 먹거리가 찾아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 기자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